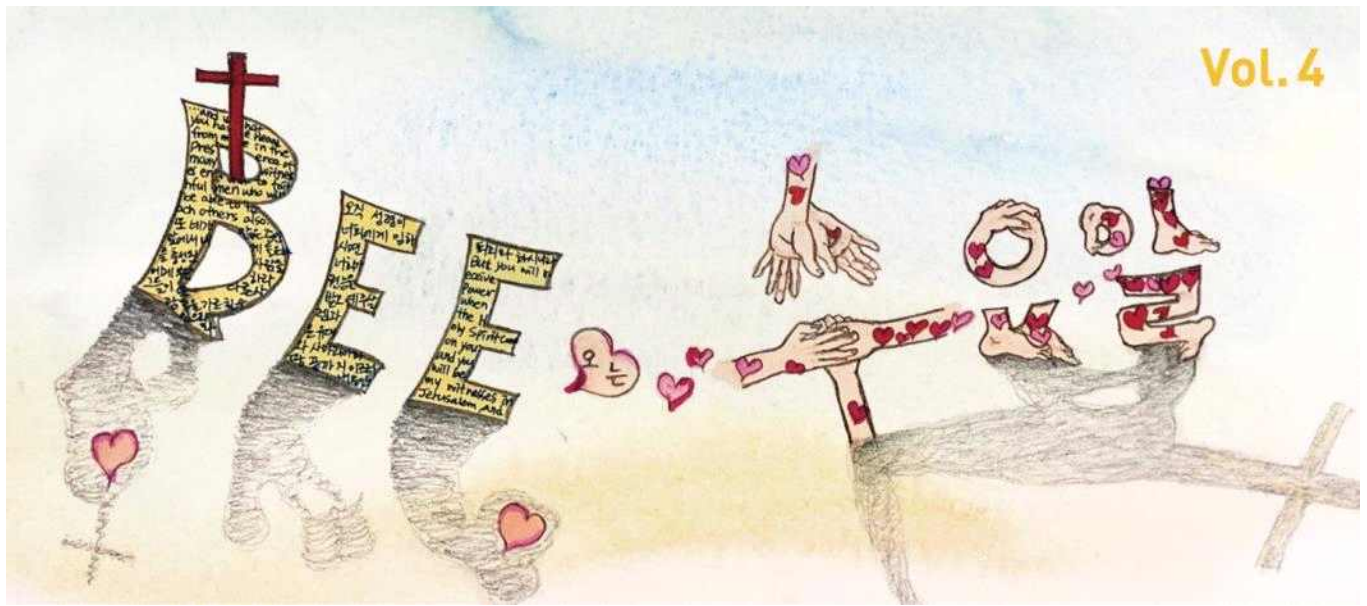




여섯번째 이야기

[2019 ‘말씀을 행하라’ 실천 시리즈②]

삶이 증거가 되다

3월 중순 꽃샘추위로 인해 다시 옷깃을 여미게 되었을 때 8,653km의 머나먼 아부다비에서 오직 FTS 과정을 위해 휴가를 내어 한국에 오신 집사님들로 인해 추위에 움추린 우리의 마음에도 봄의 따스함이 찾아 왔습니다. 두 분의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과 중동지역을 향한 사랑을 만나보았습니다.



임선희 집사, 전수열 집사

BEE : 두 분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나누어 주신다면?

전수열 : 저희 둘은 고 3 때 처음 만났으나 대학 진학을 위하여 1년간 서신교환만 하기로 서로 약속하였고 그 후 10년간 의리(?)를 지키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주고받은 편지의 양은 조금 과장하여 사과박스로 1박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1987년 초 회사 사택 내의 기도모임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기도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사역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주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교집안인 양가의 가족에게 전해 모두 개종하게 되었고, 주위에 있던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기쁨으로 전하였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목사 혹은 선교사로서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BEE : 아부다비는 한국에서 참 먼 곳인데 어떻게 아부다비에 사시게 되었는지요?

전수열 : 회사에서 UAE원전 관련업무 수행 중 2013년에 아랍에미리트공사(ENEC)에 스카우트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향후 10년 정도 머무를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라고 강하게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입니다.

BEE : BEE를 통해 얻은 유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수열 : 체계적인 교육방식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효과적이며,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이 첫 번째 유익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감히 세계를 품는 더 큰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BEE : 한국까지 오시면서 FTS 과정까지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임선희 :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의 OBC 과정을 하나하나 이수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깝게 다가오셨기에, 제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의 권유로 FTS 과정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겐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한국까지 가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말씀에 더욱 가까이, 깊이 다가가고 싶은 열망이 더 많았습니다.



BEE : 앞으로의 두 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임선희 :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BEE 사역을 통해 중동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기를 소망하며 저희 부부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교육받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BEE : 신앙생활에서 힘과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무엇인가요?

전수열 : 이사야 41장 10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은 제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EE :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전수열 : 아내를 닮은 멋진 아들 한 명 뿐입니다. 임 집사를 닮은 아름다운 딸은 없어서 그 아름다움은 손녀(현재 없지만 미래에)로 이을까 합니다. ㅎㅎ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세상을 이겨내고,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하여 알려주고 물려주고 싶습니다.

BEE : 2019년 ‘말씀을 행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면?

전수열 : 현재 가정, 교회와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을 실천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도할 수 없는 환경인 이곳에서는 우리 삶의 모습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이것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BEE를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BEE는 우리에게 ‘숨쉬 좋은 대장장이’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화배우의 모습이 연상되는 흰칠한 키와 훈훈한 인상의 전수열 집사님과 아름다우신 임선희 집사님. 두 집사님과의 짧은 교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BEE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가정과 사역에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터뷰, 글 : 김옥숙 ‘BEE수’팀장]

BEE의 보석 찾기

06. 양완식 목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2000년 전역 후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중에 같은 고등부 교사(현재 최승은 목사)가 묻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여 간 곳이 양재 온비아 과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군 교회 예배, 교회봉사, 성경 통독 등을 하였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었을 당시 온비아 과정은 가물어 갈라진 땅이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에 대한 물입과 환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평신도 사역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해 방주교회 안에서 어려움(이단이라고...)도 있었지만 10여 년 동안 BEE 사역을 꾸준히 하면서 해외 세미나, 사역자 양성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심을 실증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 BEE를 통해 교회의 차세대를 양육하고 허락하시는 때까지 BEE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방주교회에서 고등부 교사와 부장, 교회의 여러 위원회, BEE 세미나와 영어성경 통독반, 성가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은 전도에 열심인 아내와 정보통신(음향, 영상기기) 기사인 큰 아들, 의사인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07.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기본’으로 시작한 BEE가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계시는 현숙한 여인! ‘에제르’로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요.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사순절과 부활의 4월!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2. 4월 27일(토)! 2019 상반기 온비아 학생들이 강화 ‘교산교회’ 탐방을 통해 10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 6월 16일(일)-21일(금)! 몽골 DPM 졸업식 및 FTS 사역팀 모집합니다. 6일 동안의 사역을 통해 그 동안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쏟으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요!
4. 하반기에 대청(대학청년부)에서 BEE 과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시119:9)
5. 기도 테이블 소식입니다.
 - * 양재 BEE기도 모임 식구들은 하반기에 일본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과 함께 할 팀원들을 위해 중보기도 바랍니다.
 - * 4월 6일(토) 오후, 기도 테이블 리더와 부리더들이 대학로 작은 광야에서 크리스찬 뮤지컬 ‘루카스’를 관람하였습니다. 섬겨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루카스’로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